

# 전남도,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속도

### 부품별 제조 산업단지 배치 최적안 모색 연구용역 주력 산단 추가 개발도 검토 중

전남도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품별 산업단지 배치, 연관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글로벌 수준의 공급망을 갖춘 산업생태계의 종합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해 지난 3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세부 내용은 ▲해상풍력 부품 제조·조립 단지 현황조사 및 배치계획 ▲도내 해상풍력 연관기업 발굴·육성계획 및 국내외 기업 유치 방안 ▲해상풍력 국산

기자재 개발 연구개발(R&D) 과제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지금까지 중간보고회와 2차례의 점검 보고회를 했다. 그동안 해상풍력 부품 제조·조립단지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해외사례 조사와 함께 조립 단지 소재 지자체, 입주기업과 수차례 면담하고, 도내 산단별 현황과 장·단점을 분석해 배치계획을 마련했다. 부족한 가용

부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산단 개발도 검토 중이다. 특히 전남도는 터빈, 블레이드, 타워 등 대형 해상풍력 기자재 제조·조립을 위한 가용부지 확보와 해상풍력산업 집적화를 위해 정부에 목표산단 배후단지를 '해상풍력 특화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최근 목포신항 지원부두 및 2단계 배후

단지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해상풍력 부지조성 반영에 따라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속한 입주를 바라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이미 조성한 1단계 배후단지의 '해상풍력 특화구역' 지정이 시급하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남은 3개월의 용역 기간 부품별 산업단지 배치, 연관기업 발굴·육성, R&D, 인력양성 등 부문별로 최적의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신남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8.2GW 해상풍력사업을 토대로 전남 서

남권에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 진출 고도로 육성할 것"이라며 "전남을 넘어 국가 차원의 산업생태계 허브를 조성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최적의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30년까지 민간자금 등 48조 5,000억 원을 들여 신인 해상에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450개 기업 유치 육성과 12만여 일자리 창출 등 전남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김용현 기자

## 힐링명소 도시숲 우수 사례 5곳 선정

### 최우수상 순천 동천변 그린웨이

전남도가 10년 내 조성된 도시 숲을 대상으로 '2021년 전남도 도시숲 우수사례'를 공모해 순천시 동천변 그린웨이 도시숲 등 5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도시 숲이 최고의 힐링 명소이자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미세먼지 차단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함에 따라 숲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이제 선택이 아닌 핵심 기반시설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숲, 가로수, 3대 분야에 대해 우수사례를 접수, 24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수상 시군을 선정했다. 심사기준은 주변 여건 및 조성현황, 복지서비스 기능, 유지관리, 생태적 건강성, 사회·문화적 기능, 시민참여 현황 등이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상은 순천시 '동천변 그린웨이 도시숲', 우수상은 여수시 '구덕양역 폐선부지 미세먼지차단숲', 특별상은 신안군 '신용저수지 가로수길', 목포시 '삼학도 천년 가로수길', 해남군 '우수영 천년 가로수길'이 최종 낙점됐다. 순천시 '동천변 그린웨이 도시숲'은 1960년대 대규모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천변 국유지에 무허가 주택을 건축해 사

용하던 곳을 순천시에서 2013년부터 토지와 건물에 매입 보상해 2020년까지 동천변 특방 뱃길과 연계한 거대한 녹지축을 완성한 곳이다.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우수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여수 구덕양역 폐선부지 미세먼지차단숲은 1967년부터 조성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석유화학공장이 대거 입주한 여수국가 산업단지와 인접한 소라면 덕양마을을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유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성했다. 신안군 신용저수지 천년가로수길은 열악한 섬지역 생태조건에 적응하도록 지역에서 생산한 낙우송 680그루를 심어 최적의 생육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개 섬 1개 주요테마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신안군의 열정적 노력이 돋보인다. /김용현 기자

시, 추석연휴 무료급식 확대  
민생안정자금 2억5천 추가 편성

광주시는 16일부터 25일까지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무료급식을 1일 3식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복지관 등 29곳 경로식당 등에서 일일 평균 4,1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1일 1식 연 300일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700여명의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시는 추석연휴 무료급식을 확대 제공하기 위해 민생안정자금으로 2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시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아쉬운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급식의 질을 높이고, 관련부서 등과 협조해 위생관리체계 구축 등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의정모니터단 임원진 간담회  
김용진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대 후반기 의정모니터단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의정모니터단의 운영성과 및 모니터 활성화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 광주보건연, 비상대응체계 가동

### 코로나·식중독·가축방역 등 22일까지 안정성 확보 총력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원은 추석 연휴 코로나19와 식중독, 미세먼지,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고 가축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은 비상대응을 위해 감염, 환경, 동물 등 3개 분야 총 3개반 47명으로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5개 구청 및 보건소, 질병관리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분야별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갖췄다. 코로나19 등 법정감염

병과 집단식중독에 대응하고, 환경 및 가축방역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집단식중독 검사반에는 5개조 28명을 투입한다. 5개구 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신속검사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사고 대응반은 5개조 10명으로 구성했다. 대기환경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우리동네 대기정보(에어코리아) 앱을 통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을

24시간 실시간 공개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으로 인한 수질사고 시 현장조사와 수질검사 등으로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유입을 막기 위해 연휴기간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해 관내 전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추석 안전환 축산물 공급을 위해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신속 검사체계와 분야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 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의 만남을 환영합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 1. 식사, 세면, 양치, 면도 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또는 전반적인 도움을 드려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2. 의료기관의 연계 및 촉탁의사 방문, 약 복용 관리, 외래병원 관리 및 진료 등 어르신들의 질병 노출 및 예방에 힘을 기울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 3. 간호처치,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 4.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개별적인 영양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케어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라, 신체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

### 광주시의회 5분 발언

## 정순애 “고교학점제 대비 진로교육 강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 학생들의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정순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사진)은 지난 1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맞춤형 진로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3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공약으로 고교생이 대학 수업처럼 자기 적성과 선호도 등에 따라 과목을 골라 수업을 듣고 기존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5년 전면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도입을 놓고 찬반이 팽

팽이 맞서고 있다.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야 하고 수업 환경도 크게 달라지며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의 주체로서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진로진학교육은 필수이다”며 “고등학교 중심에 머물러 있는 진로진학교육을 초등학교·중학교 때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시를 위한 근시안적인 이유가 아닌 미래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의 진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모집

광주시는 하반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청년을 추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에게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적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 14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413개 양질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됐다. 시는 총사업비 23억을 투입해 시 8개 사업과 서구 7개 사업을 포함한 총 9개 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만 39세 이하 지역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참여기업에는 1인당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참여 청년은 실질적인 소득 보장과 함께 자격증 취득, 교육비 등을 2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가 모집 공고'를 검색하면 되며, 사업 주제별로 지원 대상과 접수 등의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수행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애란 기자